

제자리를 지키며 농업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한농연 조직으로!

그 옛날 중국의 시인 두보는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구나' 하고 읊조렸습니다. 한-미 FTA 8차 협상을 생각해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광우병과 다이옥신으로 문제가 된 미국산 쇠고기를, 쌀시장 개방 예외를 대가로 수입을 재개하라며 미국측이 오히려 평평거립니다.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농민의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억누르며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은 오히려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FTA 반대 광고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다 자르고 난 뒤에야 '방송 허가'가 났잖습니까?

회원 동지 여러분! 별 성과도 없이 돈 들고 힘 들고 서럽기만 한 농민집회가 끝난 뒤, 저와 회원 동지 여러분이 쓰디쓴 소줏잔에 무너지는 가슴 달래야 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민집회가 아니라도 우리는 350만 농민의 목소리를 계속 알려나가야만 합니다. 농민들이 가만 있다고 해서 농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지들과 출향 친구들에게, 매일의 생계비를 걱정하는 도시민들에게, FTA나 DDA가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차근차근히 얘기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을 지켜가는 농업경영인의 자존심과 순수한 마음이 국민들을 움직이고 잘못된 농정을 바로 잡아, '생명창고의 소중한 열쇠를 쥔' 농민의 삶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지나 3월이 되었는데, 갑작스레 찾아온 꽃샘추위가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는 우리네 마음은 새로운 한 해 농사를 위해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26일 시군구회장 교육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우리 한농연이 도약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를 가름하게 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힘과 마음을 한데 모아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한농연 조직의 간부와 회원들의 의식 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각종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올해 한농연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12만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선이다, 총선이다, 정계개편이다... 설새없이 요동치고 변하는 세상사에 휘둘리지 맙시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며 버텨가는 갈대밭과 대나무숲이 되십시오. 우직하게 제자리에서 일하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농연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의 길을 지켜나갑시다.

